

이번 호의 주요 내용: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
제 1 페이지

학사일정과 공지사항
제 2 페이지

과외활동
제 3 페이지

초등부 소식
중고등부 소식
제 4 페이지

브로츠와프에서의 행사들
국제 요리 조리법
제 5 페이지

PTA 에서 알리는 글
제 6 페이지

NGOs 학술회의
제 8 페이지

초등부 스키 캠프
제 11 페이지

BISC WROCLAW 주변
제 13 페이지

제 17 호 1 월 27 일 (금)

학부모님과 우리 웹사이트를 찾아주신 분들께,

만세! 드디어 A-level 시험 기간이 끝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름에 있을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느라 수고들 많았고 우리 모두 바라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초등부에서는 '카니발' 행사를 가지며 일 주일 내내 재미있는 활동(이 활동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에 참여하게 됩니다. Anna 선생님은 저도 이런 활동 중 한 가지에 참가하게 되는데 아직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올 해 들어 첫 전체 조회를 가지며, 이 날의 주제 또한 '카니발'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키 캠프에 간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야 돌아올 것이지만 초등부, 중고등부 두 번에 걸친 캠프 모두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며,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LAW

뉴스레터

WEEKLY SCHOOL INFORMATION, EVENTS AND NEWS



이에 행사를 조직하고 운영한 Marcin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캠프에 참가한 다른 분들과 학교에 남아서 대신 수업을 맡아준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중고등부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Anna 선생님이 과거 시험에 출품하였던 학생들의 작품을 학교 식당에 전시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둘러 보아주시시오. 지금 전시 중인 작품들 중에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수준급의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선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측과 PTA 에서는 Emmaus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집이 없고 불우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좋은) 옷가지나 침구류 및 기타 가정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집안 대청소를 하시다가 이런 물품들을 발견하시면 학교로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에는 전교생이 등교하고, 시험도 없는 관계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뉴스레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학교가 정상적인 일과대로 흘러가지 않는 기간 동안 뉴스레터를 쓰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 2 월에 있을 한 꾸러미의 활동에 관해 기대감을 가져 보시지요!

멋진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교장
Wayne Billington
배상



CONTACT DETAIL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al. Akacjowa 10-12, 53-134 Wrocław, Poland
School office tel: +48 71 796 68 61 fax: +48 71 796 68 62
email: wroclaw@bisc.krakow.pl , head@bisc.wroclaw.pl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23 Y3 Humanitarium trip Primary School Ski Camp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24 Round Table (Foundation) 8.30a.m. Primary School Ski Camp Ends Secondary School Ski Camp Starts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25 Secondary School Ski Camp ESL for Parents (2.40p.m.-3.25p.m.) Polish for Parents (1.50p.m. – 3.25 p.m.)	26 Secondary School Ski Camp	27 ESL for Parents (8.35a.m.-9.20a.m.)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Ski Camp	28 Secondary School Ski Camp Ends	29
30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31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Secondary Staff Meeting 3.40p.m.	1 ESL for Parents (2.40p.m.-3.25p.m.) Polish for Parents (1.50p.m. – 3.25 p.m.) Carnival in Primary School – Crazy Hair Day	2 Whole School Assembly 8.35 a.m. Carnival in Primary School – Switch Day	3 ESL for Parents (8.35a.m.-9.20a.m.) Carnival in Primary School – Home-made Costume Day KS1 and KS2 parties Bake a cake Year 4 Recipes for fundraiser cookbook Deadline	4	5
6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7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8 ESL for Parents (2.40p.m.-3.25p.m.) Polish for Parents (1.50p.m. – 3.25 p.m.)	9 Secondary School Assembly 8.35 a.m.	10 ESL for Parents (8.35a.m.-9.20a.m.)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11	12
13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14 Polish for Parents (2.40p.m. – 3.25 p.m.)	15 ESL for Parents (2.40p.m.-3.25p.m.) Polish for Parents (1.50p.m. – 3.25 p.m.)	16 Secondary School Assembly 8.35 a.m.	17 ESL for Parents (8.35a.m.-9.20a.m.)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PTA Pizza Day	18	19

공지사항



학교 주변에 주차하실 때에는 주의하세요. 가정집의 출입구, 또는 차도를 막으면 안됩니다.

횡단 보도에도 주차하지 마세요!

- 한국인 코디네이터 이해성 선생님의 상담 가능 시간:
월요일 8:30 – 12:05
화요일 8:30 – 10:10 및 1:00 – 3:20
수요일 8:30 – 12:05
목요일 8:30 – 12:05
금요일 8:30 – 10:10 및 12:20 – 1:50
- 일본인 코디네이터 Nagai 선생님의 상담 가능 시간:
월요일: 11:20 – 3:25
화요일: 8:30 – 3:25
수요일: 10:30 – 3:25
목요일: 11:20 – 3:25
금요일: 10:30 – 3:25
- 캥거루 수학 경시대회
올해 3 월 15 일 9:00 에 캥거루 수학 경시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5~12 학년 학생들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 3:30-4:15 에 중고등부 수학 교실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오세요. 함께 토론을 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대회는 호주의 수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지식을 함양시키고 지적인 삶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Miss Justyna Huk, Secondary Maths teacher

ECA	TEACHER	AGE GROUP	WHERE	WHEN
Homework Club	Richard Bywater	Y1 – Y6	Yr 3 room	Wednesday 3:30
Homework Club	Marta Mironiuk	Y1 – Y6	Yr 1 room (sparrows)	Monday 3:30
Sewing Club	Anna Witańska	Y2 – Y6	Yr 4 room	Wednesday 3:30
Newspaper Club	Kristina Galuska	Y3 – Y6	ESL room (opposite the gym)	Monday 3:30
ESL For Parents	Iwona Sokołowska	parents	ESL room in the small villa	Wednesday, period 7 Friday, period 1
Origami Club	Iza Łuczowska	Y1– Y6	Foundation room	Tuesday 3:30
Circle Art Club	Karolina Traut Karpińska	F – Y2	Year 1 room (eagles)	Tuesday 1:30
Handwriting	Diana Tonge	Y2– Y6	Year 2 room	Thursday 3:30
Card Making Club	Jennifer Jones	Y2– Y6	Year 5 room	Wednesday 3:30
Creative Writing	Joanna Schier	Y3- Y6	Year 6 room	Monday 3:30
Art Club	Hye Seung Lee	Y3- Secondary	Art room	Thursday 3:30
Football Club	Rob Jefferies Alex Sitkowiecki	Y1 – Y6	ul. Trwała 17-19	Monday 4:00 – 5:15
Swimming	Marcin Kwasiuk	Y1 – Y3	ul. Trwała 17-19	Tuesday 5:20-6:05
Swimming	Marcin Kwasiuk	Y4 upwards	ul. Trwała 17-19	Friday 5:20-6:05
Guitar Club	Maciek Pośuszny	Y3 – Y6 Y7 upwards	Music room	Wednesday 3:30 Friday 12.10
School Band	Maciek Pośuszny	Y7 upwards	Music room	Tuesday 3:30
School Orchestra	Maciek Pośuszny	Y5 upwards	Music room	Thursday 3:30
Drawing Club	Rebecca Grocott	Secondary	Year 11 room	Tuesday 12.10
Japanese for beginners	Hiroko Nagai	Secondary	Japanese room	Monday 12.10 Wednesday 12.10
Japanese for advanced students	Hiroko Nagai	Secondary	Japanese room	Tuesday 12.10 Friday 12.10
Creative writing Club	Joanna Schier	Y2 upwards	Year 6 room	Monday 3.30
Polish for Parents	Hanna Savel	Beginners	ESL room (by the gym)	Tuesdays 2.40 Wednesdays 1.50
		Intermediate	French room	Mondays 2.40 Wednesdays 2.40

초등부 소식



토요일에 Janskie Lazne 에서 돌아오자 깜짝 놀랄 정도의 찬 공기와 함께, 체코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눈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모든 아이들은 스키수업을 즐겼으며 마을 전체와 슬로프를 뒤덮은 2 미터에 달하는 눈을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학교에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바쁜 나날을 이어갔지요. 유치부는 멋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 학년은 전기에 관해, 그리고 전기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바뀌어 사용되는지 배웠습니다. 물론, 모두들 우리의 Marcin 체육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음주에 돌아오실 때에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거예요. 기온이 불안정하여 나 기온이 영하 4 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녀에게 밖에서 활동할 때 모자와 자켓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은 축구장은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방과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축구클럽 활동에만 할 수 있으므로 대신 농구를 한다거나 운동장의 놀이 시설 사용해 주세요.

금요일에 초등부는 조회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의 스타들에게 인증이 주어졌습니다:

- 유치부 - 태운
- 1 학년 독수리반 - Tereзка
- 1 학년 참새반 - Julia
- 2 학년 - 재하
- 3 학년 - David
- 4 학년 - 영인
- 5 학년 - 상백
- 6 학년 - 찬미

축하해요! 다음 주에는 카니발 기간 동안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가져온 카니발 관련 편지를 읽어 보시고 도전을 준비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Anna Witańska
Head of Primary

중고등부 소식



친애하는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키 캠프를 떠나 좀 이상한 한 주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일부 학년을 통합하여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ESL 수업을 감독하였으며, 체육실에서 7, 8 학년이 '중국 축구'를 하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일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화요일에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 때 앞으로 여름에 있을 IGCSE 와 A-level 시험에 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9 학년이 10 학년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관해서도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시험 때문에 못 가셨던) 2012 년 첫 전교생 조회를 열 것 입니다.

뉴스레터 첫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A-level 1 월 시험기간이 끝났으며 이에 응시한 12/13 학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1 월에 있었던 IGCSE 재시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13 학년의 경택이가 모국어로서 영어 시험에서 A 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언급하고자 합니다. 훌륭합니다!

중고등부 Anna 미술 선생님이 우리 학교 식당에 전시한 우리 학생들이 시험과제로 완성한 환상적인 작품들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의 모든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Wayne Billington
Head of Secondary

Choir Around the World in Wrocław Philharmonic House

ul. Piłsudskiego 19, on Saturday 28th
January, at 6:00 pm
tickets: PLN 20

Telephone, Radio and TV in the Museum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exhibition)

ul. Krasińskiego 1, on Sunday 29th January
at 11:00
tickets: PLN 7

The World of Plants in the Science Museum of Wrocław University

ul. Sienkiewicza 21, on Sunday 29th January
at 10:00
tickets: PLN 8

Horse-Drawn Postal Carriages – an exhibition in the Museum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ul. Krasińskiego 1, on Sunday 29th January
at 11:00
tickets: PLN 7

WKS Śląsk Wrocław - Polpharma Starogard Gd. Basketball Match

Hala Orbita, ul. Wejherowska 34, on
Sunday 29th January at 6:00
tickets: PLN 5 - 40

ONION SOUP

Chop 5-6 onions (about 1 lb.) and simmer in 3 Tablespoons butter until transparent and golden but not browned. Transfer to 6 cups court bouillon containing the diced vegetables and cook 15 minutes. Force through sieve or mix until smooth in blender.

Fork-blend 1/2 cup sour cream with 2 Tablespoons flour, stirring with 1 cup soup until smooth, then return to soup pot. Season to taste with salt & pepper, a pinch or 2 sugar, and 1/2 teaspoon or so Maggi extract. Garnish with chopped parsley and serve with crou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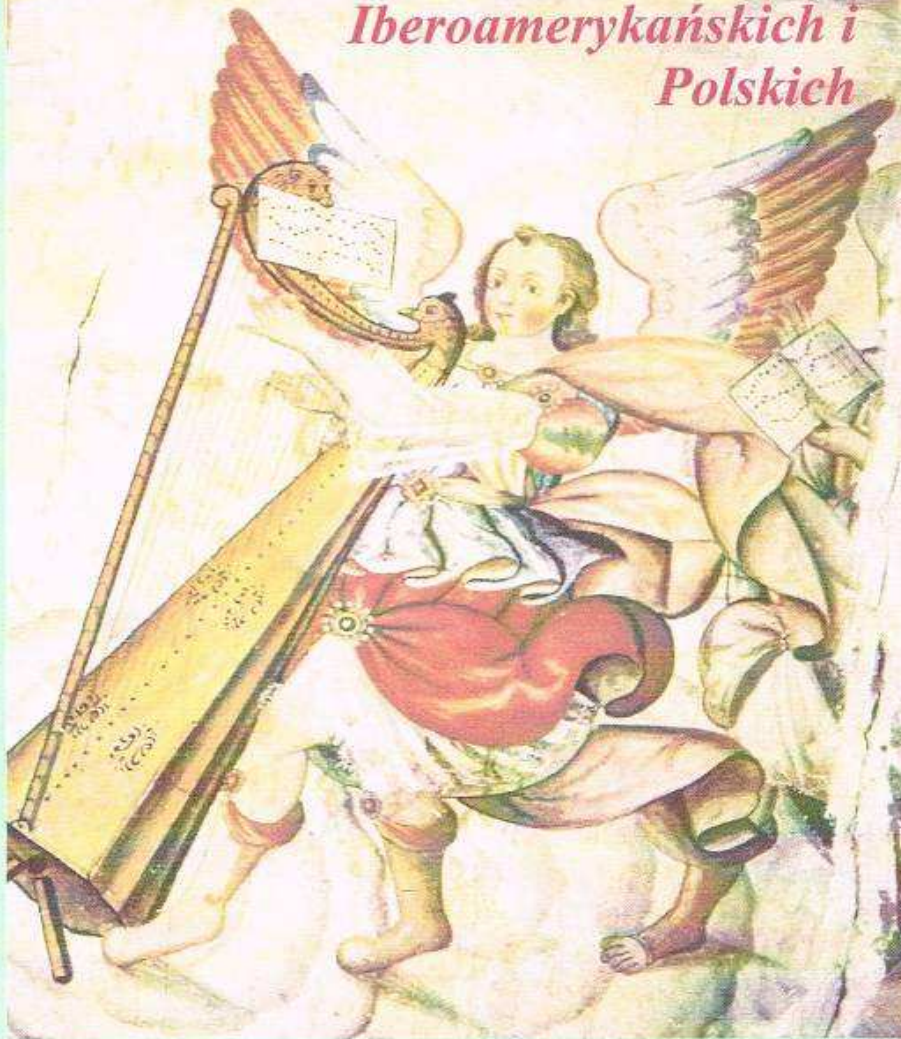
This will be quite different than the dark and thin French onion soup you may be used to, but we think you'll enjoy it for a change. It can also be made with meat stock.

As I am running out of ideas, please share your recipes with me :)

anna.at.work@wp.pl

KONCERT DAWNYCH KOŁĘD

*Iberoamerykańskich i
Polskich*



*Julieta Gonzalez, sopran
Marcin Armański, pozytyw szkatułowy*

28 STYCZNIA 2012 godz. 17

Muzeum Etnograficzne, Wrocław, ul. Traugutta 111/113

wstęp wolny

FUNDACJA
DOS MUNDOS



Early Christmas Carols from South America and Poland

Julieta Gonzalez – Soprano

Marcin Armanski - Organ

Ethnographic Museum

Traugutta 111/113

28th January, 5.00p.m.

free admission

In April this year, **EUROCLIO** will hold another history conference in Turkey, '**Looking at History through a variety of Lenses**'. They have invited me to represent the Polish branch of the cooperation. I would like to first explain about the organisation, my trip to Korea and my further involvement with **EUROCLIO**.

In April 2011, I was invited to attend the annual conference, held by **EUROCLIO**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It took place in Krzyzowa, near Swidnica. This organisation, based in The Hague, was established in 1993, with the recommendation and support of the Council of Europe. **EUROCLIO**'s members focus on history and its related fields, with delegates coming from forty nine European countries. Its primary aim is to promote the teaching of history based on the multiplicity of national perspectives, critical thinking, mutual respect and addressing controversial topics. **EUROCLIO** does not only focus on diminishing tensions between nations, but also tries to bring together different communities within countries by exploring the sometimes painful past through a safe environment and a carefully prepared process. As a result of my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 I was nominated by Joke van der Leeuw-Roord,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EUROCLIO**, to represent the organisation at the conference in Seoul in August last year. This conference was arranged by the **International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and the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ts goal was to create discussion and debate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ongoing proces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eoples of East Asia, with special attention to Korea, Japan and China. Initially, the purpose of my participation was not clear, but after my role was determined by my conference hosts; inviting me, a history teacher from an international school, in Wroclaw, Poland, began to seem quite obvious. I was specifically invited to talk about and share my knowledge of a country which had gone through a difficult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another country, combined with my experiences of working with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particularly one with a strong

connection to Asia. Apart from my participation in daily meetings and discussions, I was obliged to write several articles and conduct a model lesson for a class of Korean students. Due to the nature of my work in an international school, where most students are Koreans, in my text, entitled, '**Creating Peace in East Asia through Youth Exchanges**', I was able to discuss the relationships, friendships and occasional conflicts that arise amongst our students. Many of the delegates were truly amazed that



such a school exists in Poland...in Wroclaw! This started an avalanche of questions about both the school and the city itself. What also made the group curious was the fact that I was the only Pole, in fact the only European in this particular discussion, where the remaining group members were Korean!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was to conduct a model lesson regarding the process of the Polish-German reconciliation ('**Seeking a key of reconciliation for peace in East Asia through the case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Germany and Poland**'). Thirty Korean students were exposed to dramatic images of Nazi crimes committed in Poland



during World War II. Some were not able to understand how the situation between Poland and Germany has now completely reversed. Together we tried to find similarities of Polish-German and Korean-Japanese relations and how to overcome the dis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I am convinced that my lesson was a success judging from the reaction I received. At the beginning of the lesson, the students that sat in front of me shared such rigid and firm beliefs regarding their country's reconciliation process with Japan, but, as the lesson progressed, I had the impression that their views began to crumble and they were no longer the same students who had signed up for the lesson. They had a whole *new* perspective on these relations when they left the classroom.

The conference was attended, in total, by fifty three participants from sixteen countries, with around four hundred delegates coming from Korea. For several days, not only did I participate in meetings, but conversed with the participants: people from the media,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professors and even senators! On every occasion I recalled where I came from and what school I worked for, handing BISC brochures and arousing people's interest. Unexpected situations are prominent in my memory, one in particular is the moment when I was invited by Professor Samuel Lee, a former director of UNESCO in Korea, for a tour of Seoul, there, much to my surprise, I was 'transported' to a Korean-German wedding. At the wedding table, I was asked to explain to a group of Korean professors and senators, the complexities of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 received some looks of disbelief from the guests, but most of all; I couldn't quite believe this surreal moment myself!

On the final day of the conference I was asked to deliver a closing speech to the delegates – I treated this request as an honour. I was also nominated by **EUROCLIO** to establish its Polish branch and represent them, as well as BISC, during the conference in Turkey this year. The list of participants looks impressive, including the U.S. Ambassador to Turkey and Turkey's Minister of European Union Affairs. By representing BISC, I will be in a position to promote our school, our city and Poland, as well as enhancing my teaching skills by embracing new ideas and concepts from the wider international teaching community.

Sławomir Czerwiński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Wrocław





PRIMARY SCHOOL SKI CAMP

On 21st of January, I went to the ski camp. We rode a bus for 2 hours. When I was on the bus I got carsick and it was not very good. On the side of the road there was a lot of snow. I got very excited when I saw the snow.

We got out of the bus in front of our hotel in Janske Lazne. We changed our clothes into ski clothes. They were very warm.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wear the ski clothes. After changing, we went outside again. We walked a little bit and waited for the bus. The bus came quite fast. It went to the ski rental and we rented skis, ski boots and helmets. They were very heavy.

Then we went to the ski school. I was a beginner so first I put only one ski and walked on the snow. After that I put two skis and skied. It was just scary. I fell down but I couldn't stand up so the ski instructors came to me and picked me up. The ski instructors made up two teams. One team would stay at the place that is for little children and one team would go to another place. I was in the team that would stay in the babies' place. I was very sad. But in our team there were only six people so we learned very fast!

I liked my room very much. There were Chai Huyn, Iris, Kandela, Seo Yoon and me. We cleaned our room and tidied our beds because we had a clean room competition. I thought we will win but Alex's room won! I never thought that boys would win. They got candy for that. We wanted to get it!

After camp I feel a little bit sad and a little bit happy. It was very fun and I want to go there again!

If I can, I want to go to green camp too.

Ai Ito
Year 6 Student





the skis were more heavy than I thought. When I was carrying the skis I was melting because it was so hot. After we got our skis and boots we went to the slope.

The beginners first tried at the bunny hill. And then I went to a little harder slope. It was fun. The problem was I couldn't stand up. I know how to stand up but I couldn't do it, so on the first day I needed a little bit of help for standing up.

In the Czech Republic there were lots of Czech foods. It was good. And I think that Polish and Czech food is similar. After skiing on the first day I went to my hotel room. One of the teachers said it was the best room in the hotel, but I didn't care because it wasn't that important to me. The important thing was that we were here to ski.



On the second day I was feeling bad, my muscles hurt. We ate breakfast and got ready for skiing. It was horrible to ski early in the morning. That is, at first I thought it was too much, but after a while I changed my mind. It felt good to ski in the morning!

I was very proud that now I could stand up, and happy. Well, for other friends it was nothing but for me it wa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That day we had another little problem. Three kids went into the deep snow and they were stuck. I was trying to help one of them, but I got stuck too and I fell. If I didn't know how to stand up I would still be stuck up there!

On the last day I didn't want to go home. I missed my house but I didn't want to leave. That day we had a race. I was nervous, I wanted to have good results. After the race we packed our bags and left for Wroclaw.



On the first day, the first thing I did was packing my bag. When I got to school it was almost 8:00 a.m. I gave my passport to the teacher and went to the bus. It was already waiting at the front of the school. When all the kids came, we rode the bus and went to Janske Lazne. When we were getting there it was getting colder and the snow's height was getting higher and higher.

At the ski camp, I learned a lot of things: how to stand up, how to ski, how to brake and how to make friends. Because of the camp I'd made a lot of friends. The things I liked were the food at the hotel and skiing! Next year I want to go to the Ski Camp again.

First when we arrived we ate our lunch and got ready for skiing. I didn't like the ski boots when I wore them. It was hard to walk and they were heavy! The terrible thing was

Chai Hyun Park
Year 6 Student

BISC WROCLAW 주변 모습



A brief introduction to parents at BISC Wrocław